



성서만나
(700원 식권)
안내사항

여기까지
이코

'성서만나'
(700원 식권)
안내사항

여기도
페이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동행해 줄 것”

최정권 총장 권면, 2학기 개강예배



2학기 개강예배가 8월 26일 12시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에서 “대학이 마주한 여러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과 생각에 강력하게 심어주신다(히8:10)고 약속하셨다. 현실이 우리를 불안과 우울 그리고 겁 먹게 하여도 말씀을 온전히 지켜 따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동행해 줄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이에 앞서 강규성 목사가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인가’(사 1장)로 말씀을 전했다. “이 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크게 꾸짖었다. 이유는 헛된 예배를 드렸고 약자에게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2학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주변의 힘겹고 어려운 삶에 놓인 학우를 찾아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나눠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이며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채경훈 총학회장은 “주님 안에서 얻은 힘과 지혜로 2학기가 성장 발전하며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리니성교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 14:10~16)

안창선 목사 (성서학과)



얼마 전에 딸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다녀 오는 차 안에서 딸이 제게 질문 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내가 좋아, 아니면 오빠가 좋아?” 저는 대부분의 부모처럼 “아빠는 아들, 딸 똑 같이 사랑해~” 그 말을 듣자마자, 딸이 대답 했습니다. “어이그, 아빠! 나랑 있을 땐 내가 더 좋다고 해야지!”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로, 시험의 기로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지 애굽의 바로에게 항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14:10-11).

그러나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

원을 보라”(14:13).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14:15)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가 그들이 건너가기까지 멈춰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이들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위해 전진하는 모든 성서 공동체 구성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4 년 BRC 연합개강예배

‘BRC 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원천’



BRC 개강예배를 마친 모든 참가자가 함께하였다 .

2024년 2학기 BRC 연합개강예배가 26일 오전 8시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이 ‘너희가 살리라’(레18:1~5)로 말씀을 전했다. “여호와와 모세에게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과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였다. 8시 BRC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삶을 이루는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권 총장은 “대학원에서 목회와 설교의 정의에 대한 공통점 중의 한 가지가 성경의 기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첫째, 성경을 소리 내 읽으면 세포에 각인되고 몸에 반응을 일으켜 가슴으로까지 느끼도록 해 준다. 둘째, 자신감이다. 스스로 BRC에서 작은 성취를 이룰 때 참된 자신감을 얻는다. 아침에 소리내서 읽는 말씀이 자존감과 자신감, 독서의 진정성까지 높여준다”고 권면했다.

한국오라클 교육용 자료 무료 제공

‘시 융합학부’
연구 환경 크게 향상 기대

28일, 한국오라클 권태환 전무와 신지현 팀장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학과장 김원빈)를 방문하여 한국오라클이 우리 대학 학우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라클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으로 오라클 아카데미를 운영중인데 최첨단 교육 및 학습용 교육포털사이트로 커리큘럼과 실습과목, 워크샵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현재 개설 중인 과목은 Java, Database, Cloud, Project Management 등이 있다. 권태환 전무는 우리 학우들이 오라클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과정은 물론 각종 리소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의 Career Center를 통해 학습자들의 교육과정과 진로 탐색을 연결시키는 일도 한다며 현재 45개 대학이 참여 중이라고 말하였다.

김원빈 학과장은 “한국오라클과 파트너십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 대학 ‘시융합학부’ 전공자에게 우호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관련 연구와 인턴, 취업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9 일부터 2025 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재학생, 동문들의
입학 권유가 가장 큰 힘”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신설한 ‘시융합학부’에 지원자가 얼마나 오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융합학부’는 무전공으로 50명을 선발한다. 입학 후 1년간 수업을 탐색한 후 2학년 때 자신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전공’, ‘휴먼서비스 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중 에서 선택하게 된다.

영유아보육학과는 29명을 모집한다. 초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보육학과와 지원율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유보통합 확정과 함께 2026년 통합교사 자격제 도입 호재가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 간호학과(30명)의 강세도 여전하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사회복지학과(29명), 혼란의 시대를 밝혀줄 성서학과(50명)는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는 장점도 있다.

신 팀장은 “수년간 우리 대학의 입시를 보면 재학생, 동문 및 지인들과 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70~80%에 달한다. 올해도 성서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변 입시생에게 우리 대학을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것 감사

“방송국 부패의 틈새에서 내면은 허탈과 공허들로 가득했다”

“명료한 방향성”을 가진 성서 학우들이 부럽다“

【2학기 부흥사경회, 4인이 들려준 복음이야기】 2024년도 2학기 부흥사경회가 9월 3~6일까지 4명의 연예인(조혜련, 이성미, 신애라, 정선희 집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험난했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간증을 펼쳐 나갔다. 그들은 한결 같이 “명료한 방향성”을 가진 성서 학우들의 모습이 부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조혜련 - ‘반전의 하나님’(요 3:16)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성서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부럽다. 나는 타 종교에 심취해 있다가 늦은 45세에 주님을 만나고 처음 성경을 봤다. 끊임없이 읽고 읽었다. 말씀을 통해 닦쳐온 시련은 물론 위로와 반전까지 맞게 되었다. 나는 성서학우들이 성경 읽기를 카톡에 만들고 늘 읽고 나누며 주를 사모해가는 동역자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이성미 -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딤후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혹독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개그우먼으로 화려한 전성기, 미혼모에 쏟아진 냉혹한 시선의 벽에 갇혀있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자녀와 갈등에서 죄를 깨달고 새벽 제단으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주님은 성서학우들을 반드시 사용한다. 그분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기를 소망한다.

신애라 - ‘나눔’(눅 10:30~35)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귀한 대학에서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하다. 본문을 풀이하면 여섯 부류가 등장하는데 지금도 주변에 존재한다. 우리는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긍휼함과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까지 보여준 사마리아인을 닮아야 한다. 성서 학우들이 주님을 믿게 된 이 감사함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나눔도 실천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겠다.

정선희 - ‘주님이 함께하시는 고난’(빌 4:11~13)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대학 학우들의 명료한 방향성을 보며 무척 부럽다. 개그우먼이 되었으나 방송국 부패의 틈새에서 내면은 허탈과 공허들로 가득했다. 새벽기도에서 주님과 만났고 아빠와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너와 함께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들, 이 아름다운 구속을 마음껏 누리려는 당당한 학우들이 되어 달라.



신애라 집사가 사경회 인도에 앞서 총장실을 방문하였다. (왼쪽, 강규성 부총장, 최정권 총장, 신애라 집사, 박설미 팀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700 원의 사랑 '성서 만나' 프로젝트

삼일교회
하루 10 명에게 점심 대접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가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일부 재학생들을 위해 헤세드(학생식당)에서 6천 원의 식사를 700원에 먹을 수 있는 '성서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성서 만나'는 필요한 학우가 키오스크에 해당 버튼(성서 만나)을 누르고 700원을 결제하면 6,000원짜리 식권이 발행되는 시스템이다. 이 버튼은 하루 10장으로 제한되며 낮 12시30분에 '성서 만나' 화면이 열리게 된다. 일반 학우들은 꼭 필요한 학우를 위해 이 식권 사용을 양보하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삼일교회는 이를 위해 매월 백만원씩 후원을 약속하였다.

전략기획실(실장 권경만)에서는 '성서 만나'의 가동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후원문화가 캠퍼스 안에 퍼져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

학생식당 '헤세드' 개관 예배

"학우들의 풍요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최정권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학생식당 '헤세드'가 이름도 새로 짓고 새 운영업체 '정우푸드'의 시작을 감사하는 감사예배가 8월 26일 식당 입구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개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음식이 생존의 수단을 넘어 삶의 커다란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정우푸드가 운영하게 된 '헤세드'가 양질의 미각과 저렴한 가격대로 학우들이 자주 찾는 풍요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중완 행정본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테이프 컷팅을 가졌는데 강우정 이사장과 최정권 총장 내외를 비롯해 채경훈 총학회장, 정우푸드 관계자 외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함께하였다.

메뉴는 한식과 일품 두 가지로 1식 5찬이며 키오스크에서 식권(6,000원)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GS25 성서대학교점 24 시간 운영

학우들,
'학생 복지차원에서 크게 환영'

학우들의 편의를 위한 GS25 성서대학교점이 식당 옆 매점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선식품과 도시락 일용잡화 등 일반 편의점 품목 대부분(담배, 주류 제외)을 갖추고 24시간 상시 판매한다. 오후 6시부터는 무인 판매제로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GS와 네이버 앱, 후불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GS25를 이용한 박인경(성서3) 학우는 "청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을 다 갖추고 셀프 계산과 접근성까지 무척 양호하다. 이것은 학생 복지차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GS25 편의점 내부 전경

‘섬김’ 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2024 밀알훈련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친환경 의식도 강조



훈련생들이 자작나무숲에서 안전로프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2024년 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입생 대상 밀알훈련이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8월12일부터 23일까지 3차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훈련생은 277명(학부 217명, 대학원 61명), 자원봉사자는 186명(학생 122명, 교직원 64명)으로 모두 463명 참여했다.

도착 후 개회예배와 함께 ESG 교육으로 다육이를 화분에 직접 심으며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훈련생 전원에게는 고급 텀블러를 제공, 일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의식도 함께 높이는 시간이 됐다.

제2일 노동은 자작나무 숲 일대와 숙소에서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따라 안전로프 설치작업에 참여했다. 조별로 나뉜 구간에 일정 간격으로 땅을 판 후 1미터 길이의 말뚝을 심고 흰색 로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오후에는 1번 능선을 따라 산행에 올라 훈련센터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고 자작나무 숲 일대를 순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묵상과 신앙 간증으로 팀원 간의 이해와 우의를 두텁게 하였고 촛불 집회로 ‘성서인의 다짐’을 다 함께 외치며 성서대의 정체성을 되새겼다.

이번 밀알훈련도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의 모습이 참가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식사의 전 과정, 프로그램 진행, 숙소 청소와 정리, 아픈 훈련생을 돌보는 간호 등 봉사자들 모두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최정권 총장 초청 졸업예정자 리셉션

9 월 23~27 일까지, 고승태홀

총장 초청 졸업예정자 리셉션이 학과별로 9월 23~27일까지 고승태홀에서 개최된다. 이 리셉션은 졸업예정자들이 복음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지난 4년간의 과정을 간증하고, 또 학교에 대한 마지막 건의도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리셉션은 케익 커팅과 만찬으로 시작하여 학과장의 격려사, 후배들의 응원, 대표학우의 간증 및 최정권 총장의 권면으로 이어진다.

리셉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성서학과 23(월) 오후 6시
- ▲ 영유아보육학과 24(화) 오후 6시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5(수) 오후 7시
- ▲ 사회복지학과 26(목) 6시 30분
- ▲ 간호학과 27(금) 오후 7시

1 학기 학우들 봉사 실적 초과 달성

목표 1만 시간 달성을 72.08%
2 학기에도 섬김으로 주께 영광을!

2024년 「봉사의 해」를 맞아 지난 1학기 우리 학우들이 봉사한 누적 시간은 여름 방학이 끝나는 지난 8월 31일 현재 총 7208시간으로 목표 1만 시간에 72.08%를 이룩하였다.

학우들이 수행한 봉사 유형을 보면 그룹별 활동이 다수였다. 밀알훈련(8.12~23일, 1,2,3차)에 168명이 4,032시간을 섬겨 가장 큰 몫을 해내었고 밀알캠프(7.29~31)는 68명의 학우가 1,600시간을 봉사했다. 이 밖에 제주도, 제부도와 춘천 지역 농촌 봉사, 지역교회 캠프 봉사 및 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WFK청년봉사단), 헌혈하기 등을 통해 값진 섬김을 실천해 주었다.

교목실 구광면 목사는 연말까지 135명의 학우가 그룹별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은 당현천 및 복지관과 연계된 지역봉사, 헌혈, 지역사회문제해결 공모전과 연탄 봉사하기 등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370여 명의 학우가 각자의 생활 주변에서 개인 봉사에 나서게 되며 교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더하면 전체 봉사 시간 수는 목표값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목실은 학년 초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THE* 봉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4개 세부 사업(봉사 교육, 개인 및 그룹 봉사, 프로그램 공모전, 해외 봉사)을 정하고 목표 시간을 개인당 10시간, 학생수 1,000명 기준으로 '봉사 1만 시간' 목표를 세운바 있다. 2학기에도 학우들이 열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줄 것과 자신의 봉사 실적을 구글 폼(홍수달 발송)으로 입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교목실 950-5540/5446

성서학과장 조현진 교수

사회복지학과장 배진형 교수



성서학과장 조현진 교수 사회복지학과장 배진형 교수

최정권 총장은 성서학과장 겸 일립신학연구소장에 조현진 교수, 사회복지학과장 겸 사회복지연구소장에 배진형 교수를 9월 1일자로 임명하였다.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주임교수로 안창선 교수, 사회복지대학원 주임 안정선 교수, 인권센터장 강정원 교수, 일립생활관장 김용기 교수를 각각 임명 발령하였다.

성서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조현진, 배진형 교수는 학사관리위원회와 일립교육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도 함께 겸하게 된다.

김승호, 조윤경, 정해덕 교수에 정부 포상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한 김승호(성서), 조윤경(영보), 정해덕(컴소)교수가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정해덕 교수)과 교육부 장관상(김승호, 조윤경 교수)을 받았다. 표창장 9월 4일 총장실에서 최정권 총장이 전하였으며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여해 수상을 축하했다.

표창 증서와 함께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시계가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최정권 총장이 총장실에서 정년 퇴임교수에게 정부 표창장을 전하였다.
(왼쪽부터 정해덕 교수, 최정권 총장, 조윤경 교수, 김승호 교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발표
우리 대학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복음전도자」양성 위해 노력할 것”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가 지난 8월 7일 발표되었다. 성과 평가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과 ‘자체 성과관리’ 영역으로 이뤄졌는데 우리 대학은 두 영역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에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C등급을 받았었는데 한 등급 오른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이 받을 대학혁신사업비 총액은 23억 2천6백만 원으로 확정됐다.

우리 대학은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학생들의 전공자율선택권 보장 및 확대 △교육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환류체계 분리 △3개 핵심 추진과제로 교육과정 개편, 유연한 학점 체제, AI융합학부의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지원체제 설정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자체 성과관리’ 영역에서는 △자율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값 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제시 △모든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개선, 보완 사항으로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혁신전략의 추진 일정이 명확하지 못한 점 △학업 중단 위험 학생 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 실적 부족 △사회 및 산업체의 의견 수렴 과정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되었고 ‘자체 성과관리’ 영역에서는 △자율성과지표 구성에서 산출지표와 구성지표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규성 교육혁신사업단장은 “이번 평가는 전년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로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 이룬 결과다. 앞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복음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근 목사 청빙

중앙성서교회 담임목사로



이우근 목사

중앙성서교회(담임목사 현희철)는 지난 1일 제 6대 담임목사로 이우근 목사(신대원 23, 제주성서교회 담임)를 청빙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사에 대한 청빙 찬반 투표는 8월 25일 교회 전체 공동의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투표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이 목사는 12월 부임할 예정이다.

교회는 현희철 목사를 공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하였다. 현희철 목사는 멕시코한인장로교회 목사를 역임하였으며 2006년 12월 중앙성서교회에 부임한 이래 18여 년간 봉직하였다.



최정권 총장

9월입니다



8월 코코스지에서 우리 학교에 일어날 6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관 개선, GS25 입점, 식사의 질 변화, 교내 보행의 안전확보, ESG 실행, 새로운 형태의 전도부흥회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뤄졌습니다. 기숙사는 실내는 물론이고 주변 나무 정리까지 다 마쳐서 교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도부흥회는 조혜련, 이성미, 신애라, 정선희 집사로 이어지는 감동의 메시지가 학생들의 영혼을 흔들었고 역대 어느 전도 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GS25의 입점은 단순한 편의점이 아닌 우리 학교 소비 문화를 바꿔 놓을 것 같고 식당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보행 환경은 백병원 주차 차량 제한으로 상당한 주차 수입 감소의 손해를 보며 계속 진행해 갈 것입니다. 총장과 학생들의 협조로 앞으로 교내에서 스쿠터 이동과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 음식까지 조정해 나갈 겁니다. ESG의 실현은 다음 세대에 넘겨질 지구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밀알 훈련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디자인의 텀블러를 제공,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도록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저는 총장으로 이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강의실입니다.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근교에 유명 사립대학들이 있는데 소규모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그중에 1,400명 정원의 하버포드 칼리지 (Haverford College) 와 1,600명의 스와스모어 칼리지 (Swarthmore College) 는 작은 대학의 장점인 특유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협력적인 분위기,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질 높은 강의가 특징입니다. 이런 대학들과 우리 대학의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학의 질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손에 든 책은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 요소」 입니다. 책장을 넘기며 드는 생각은 어쩌면 이 책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인공지능학부를 개설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강의실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는 좋은 대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학기 좋은 강의 평가를 받은 교수님들과 총장실에서 차담회를 하면서 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동안은 이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2. 재정문제와 기부금입니다.

요즘 대외협력실에서 포천 양수발전소 건립보상을 받은 50억 때문에 기부자들이 기부금을 줄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학교에 큰돈이 들어와 학교 재정이 넉넉해졌으니 기부금을 줄여도 되지 않겠냐는 오해가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50억은 갈멜관 재건축에 쓰입니다.

법인에서 이 기금의 보관은 5년이고 만일 5년 안에 학교로 넘기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는 서울시에 재건축을 위한 용적을 확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승인이 나면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50억은 일반 재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전체 증축공사가 110억 정도 예상되므로 오히려 60억 이상의 모금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지난 15년이 넘는 긴 세월을 등록금 동결과 재학생의 감축에서 오는 등록금 수입 감소가 학교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문들과 외부에서 오는 기부금이 저희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총장인 저는 법인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분의 손길은 제한 없기에 우리는 이겨 갈 겁니다.

어느 한 시대 우리 학교가 위기를 느끼지 않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진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우리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하는 것! 그게 위기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은 채플의 정신과 모든 강의실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신앙적 자세와 아침 직원 경건회를 통한 교직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됨을 변함없이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총장의
편지



한진호 교수(기초교양교육과)



임지영(성서3)

바다 지킴이 활동

여름방학을 맞아 봉사단과 제주도로 바다 지킴이 활동에 다녀왔다. 이번 활동은 멘토링 캠프로 청소년들이 대학생 언니, 형들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후 위기로 급변하는 자연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은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해변으로 향했다. 봉사단원들 손에는 부대 자루가 들려 있었고 안전에 대비한 주의사항 전달 후 활동이 시작됐다.

청정 해변인 바위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났다. 바위틈새에서 건진 물건들은 나일론 끈, 플라스틱 물병과 목직 한 나무 멍치 등이었고 큰 자루는 금방 채워졌다.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항구도 있어서인지 건축 폐자재용 기다란 나무토막도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볼 때는 검은 돌로 이루어진 그림 같은 해변이었는데 내려가 보니 각종 쓰레기가 많았다. 간혹 바위 위로 도망가는 게가 나타나 우리를 한참 바라보기도 하였다.

한여름에 내리쬐는 열기와 해변 돌밭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금방 우리를 지치게 하였다. 어린 봉사단원이 "선생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5분 지났어" 라는 대답에 픽하고 웃음이 나왔다. 불룩해진 부대 자루와 담기 어려운 큰 나무 멍치들을 해변도로 위로 올려 두면 이것들을 모두 모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첫날에 더위 먹은 단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 단원부터 먼저 차에 타도록 인솔해 데리고 왔다. 일을 다 마치고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웅성거리며 활기찬 대화가 시작되는 걸 듣고서야 나는 안심이 됐다. 저녁 식사에 하이라이트는 한 마리씩 주어진 어른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였다. 무슨 돔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맛있게 먹었다. 그때 서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오늘 우리는 바다를 깨끗하게 했으니 물고기 한 마리 먹을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모두 생각하지 않았을지 추측해본다.

솔직한 표현과 해석

저에겐 평소 존경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78세, 다른 분은 72세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두 분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친 두 분을 댁까지 모셔드리던 중 갑자기 차 안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마치 포탄 터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저에게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 본 모습에 적잖게 당황했지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분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바로 '다음 주'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72세 된 분이 "나 코로나 다음 주에나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78세 된 분이 '다음 주'를 월요일로 이해한 것에 반해 말쑤한 분의 다음 주는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일요일 아침,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에 갔는데 들리는 첫마디가 "다음 주에 온다더니?"였고 그 말에 그만 실망하여 화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78세 된 분의' "다음 주에 온다더니"라는 말 뒤에는 '걱정했는데 벌써 왔구나, 다행이야'라는 말이 생략되었는데 해석의 오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음 주'의 해프닝은 종종 우스갯소리로 등장하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고 두 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언젠가 팀플 시간에, 말실수로 오해를 사지 않으려 애쓰는 학우들의 경직된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팀플은 진전되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솔직하게 표현하고 해석을 잘해보면 어떨까요? 편하게 말해도 상대가 해석을 잘할 거란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설령 오해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위의 두 분처럼 거리를 좁히는 훌륭한 매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온다더니'라는 말에는 '걱정했는데 벌써 왔구나, 다행이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한계가 800m라고 하는데 이 초고층 건물은 무려 828m(162층)에 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높은지 수치로는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 높이는 우리나라 63빌딩(249m)을 세 개 높이로 쌓고 다시 거기에 25층 아파트 하나를 더하면 높이가 비슷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이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 이룬 것이라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저 높은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세찬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대나무 마디의 원리입니다. 30층마다 대나무의 마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견고성을 더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측정하고 분석하는 센서를 꼽습니다. 빌딩 곳곳에 GPS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건물의 기울기 등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보강할 수 있는 장치까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위해 신앙의 선배들은 예부터 '마디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일을 묵숨처럼 지키려 했던 이유입니다. 예배가 마디 역할을 합니다. 주중에는 수요일, 금요일이 마디이고 새벽예배가 마디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영적인 GPS가 되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힘으로 붙들어 줍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22

오늘 상회 한라경글 · 김유진 그림

깜빡깜빡.

어스름한 새벽, 오늘 상회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병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면

주인은 간판에 불을 켜고 삐걱 소리가 나는 작은 문을 엽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기 전까지 작은 병을 반짝이게 닦고

병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는 이름도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상회에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할머니도 오늘 상회에 왔습니다.

주인은 할머니에게 오늘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이곳에 찾아왔고

주인은 늘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오늘을 더 달라고 고집부리던 꼬마였습니다.

주인은 떼쓰는 꼬마에게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가지만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오늘이 지났습니다.

눈가와 이마에는 그동안의 오늘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락)



<https://blog.naver.com/starry1205/222545927164>

만져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시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뜨고 지는 해를 통해, 초승달 반달 보름달 하현달 등 달의 모양을 통해, 밀물과 썰물 등 바다의 조수간만 차를 통해 감각화 한다. 그런데 여기, 시간을 물질화 시각화 하는 그림책이 있다.

작가는 그림책 <오늘 상회>를 통해 '병'에 담긴 '오늘'을 이야기한다. 병에 담긴 오늘은 '오늘 상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이름이 적힌 병으로 건네진다. 매일 매일 마시는 '오늘', 수없이 많은 '오늘'이 사람마다 차곡차곡 쌓여간다.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릴 병 안의 '오늘', '오늘'은 어떤 맛일까? 어떤 향일까? 어떤 색깔일까? …… 모든 것이 궁금한 오늘,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오늘'의 맛과 향과 색과 형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생활의 중도 2020년이월중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48호



“정권아
제주에 가면 꼭 이월중 미술관에 가봐라.
난 3 번이나 갔다.”

이중섭 미술관에 익숙한 저에게 친구가 전해온 메시지 때문에 작열하는 제주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서 찾아갔습니다. 노년의 화가는 생존해 있었고 그의 그림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선택된 이유는 나무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저의 현실 때문일 겁니다.

사람과 바람의 길을 막고 서 있는 나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나무처럼 건물을 들어 올릴 기세로 교만해진 나무. 12 개의 돌기둥과 파란 잔디 광장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중국 단풍나무들. 만나보리 광장을 향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잡목들을 정리하는 중에 이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화가가 그린 2 백년 된 올리브 나무가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는 물론이고 나무 속에 자리 잡은 집과 자동차 그리고 새와 사람 모두가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미국 집 뒷마당 나무 위에 지어져 있던 트리 하우스가 생각났고 솔나무 아래 주차해 놓은 차 위로 떨어진 송진의 진한 냄새가 떠 올랐습니다. 가장 부러운 건 화가의 상상력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저런 상상력을 할 수 있고 그 상상력을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꿈을 꿀 겁니다. 그 꿈을 벽에도 캔버스에도 담아낼 겁니다. 그게 정신의 노화를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해 주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 줄 겁니다.

제주에 가시면 이월중 미술관에서 그 상상력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세미나를 마친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대학어린이전

‘소통, 익숙함의 재발견’ 사례 발표

권효진, 정미옥 교사가 24일,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지원학회가 주최하는 ‘함께 배움-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세미나에서 ‘소통, 익숙함의 재발견’ 사례를 발표하였다.

권, 정 두 교사는 부모와 함께 식습관을 지도하는 ‘행복한 밥상’과 ‘인사로 마음 나누기’ 등 네 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700명 이상의 보육교직원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부모참여의 다양함과 프로그램 등의 정보가 공유돼 값진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되었다.

[소망반 권효진 교사]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작업이 진행중이다.



월계중학사회복지관

긴급 기능보강공사

서울시와 노원구 지원으로 복지관 건물에 대한 긴급 기능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관은 건축 후 30년 이상 지나서 건물 자체의 노후화가 이미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빗물에 의한 침수 피해,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의 적격 심사 과정을 거쳐 착수됐다. 공사는 ▲기와지붕 방수공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천장 마감 복구공사 등으로 8월~10월 중순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체 사업비는 4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공사로 복지관은 불가피하게 일부 프로그램을 휴강 및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총무팀 윤종찬 팀장]

대형쿠션에 누워 상상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유아들.



꿈빛어린이전

상상특독 미술관

22일, 3~5세 유아들이 북서울 꿈의 숲 상상특독 미술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자연 주제 전시회는 ‘초록 물결 초록 숲, 발걸음 산책, 거인 피자, 우유 속에 풍성’ 등의 창의성 가득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유아들은 다양한 특성의 텍스처로 식물을 심어보고 야채 모양의 대형 쿠션에서 촉감과 색상까지 기억에 새겼다. 여러 재료로 대형 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상상의 시간에 깊이 빠져들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 다양한 느낌과 형태로 이뤄진 촉감물을 활용한 오감 발달 놀이에서도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친구들과 작품 놀이로 협동심까지 길러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백합반 강옥경 교사]

장년부 봉사자들이 동두천 성서섬김교회에서 섬김을 보여주었다.



성서대학교교회

장년부 섬김 사역

8월,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이어 장년부 국내 전도사역을 진행하였다. 청주 흥덕교회의 시설보수공사 섬김을 시작으로 성서선교회 산하 의정부 좋은교회(김영악 목사)와 동두천 성서섬김교회(이춘석 목사)를 섬겼다. 좋은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로 찬양과 기도, 말씀, 율동과 게임, 놀이 등으로 활력과 생기를 가득 불어넣는 시간이었다. 성서섬김교회에서는 교회 내 어르신과 이웃 주민 대상의 미용 봉사로 큰 호응을 얻었고 노방전도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인에게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됐다.

폭염이 가시지 않은 더위에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섬겼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물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오종철 목사]

유아들이 어린이집 입구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중이다.



시원한 물놀이

상계백명원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주~2주까지 원내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무더위로 지친 유아들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물을 이용해 더위도 쫓고 재미와 소통을 추구하며 동시에 사회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놀이 시작 전, 준비운동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 안전한 물놀이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모두 풀장으로 들어갔다. 미끄럼틀을 신나게 탔고, 풀장에서는 발장구로 장단과 물놀이를 즐겼고 가지고 온 물총으로는 친구들과 물을 쏘고 맞히는 기쁨을 맛보았다. 물풍선을 벽에 던져 터트리는 쾌감도 특별한 경험에서 더위마저 잠시 잊게 한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됐다. [푸른반 강유나 교사]

도담도담나눔터 11 호점의 내부 전경



도담도담나눔터 11 호점 개소

노원구아종합지원센터

6일, 노원구 공동육아방 상계3,4동 도담도담나눔터 11호점 운영이 시작됐다. 공동육아방 도담도담나눔터는 영유아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실내 공간과 부모 간 소통 및 정보 교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구민체육센터 1층에 자리하며 불빛 우주터널, 우주선 카페놀이, 불빛바닥밟기, 로켓트 체험 등 우주 컨셉의 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가정이 화~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매주 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선화 특수교사]

하늘정원에 조성된 물놀이장에서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열린 어린이집 물놀이

상계5동어린이집

19~20일까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물놀이'가 진행되었다. 물놀이를 위해 하늘 정원에 물 풀장과 테이블, 물풍선 놀이 등을 갖춰 다양한 놀이를 즐기도록 준비해 놓았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물총놀이로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넓혀 갔고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물놀이장은 참여한 아이들의 신명이 난 웃음과 목소리로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으로 바뀔 만큼 전체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학부모들은 즐겁고 기쁜 자리였다며 수고한 교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유대감 형성을 위한 부모와 유아 카나페 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클로버 부모교육 '알콩이 달콩이'

늘사랑어린이집

20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알콩이 달콩이'가 진행되었다. 부모님과 영유아가 '카나페 만들기'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애착 증진 및 요리 활동으로 오감의 즐거움을 펼치는 시간이다.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게 사랑의 감성을 피어나게 하였다. 참석한 아이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하였고 부모들도 다양한 맛을 표현하고 전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시간이었다. 한 학부모는 "편식하던 재료로 조리하며 관심 갖는 게 보기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즐거운반 유희이 교사]

가정폭력피해자가 자아 회복을 위한 수경식물 화병 꾸미기에 임하고 있다.



성공 경험 - 원예 원데이 프로그램

말개우리상담반

20일, 가정폭력피해자 대상, '원예'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폭력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며 자존감 손상과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게 된다.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아존중감 회복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고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성취 경험과 격려가 필요하다. 본인이 수경식물 화병을 꾸미며 돌보는 방법 등 주도적인 활동을 유도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로 만다라 작업도 하며 자신의 속 마음을 확인했고 식물을 보고 만지며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정민영 과장]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4년 7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반세호 목사)	2785만원(운영)	장현진(교수)	150만원(운영, 영보)
정해덕(교수)	1020만원(운영, 컴소)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100만원(장학)
대전새로남교회	400만원(장학)	안명준(교수)	100만원(장학)
경성교회(박종길 목사)	370만원(장학)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2구좌 오윤아 윤종찬 허성보 5구좌 이인경 7구좌 김선화	일 반 1구좌 김동우 박영희 윤준영 황영수 3구좌 장문석
1구좌 김요셉 김응환 박창민 손영화 조소연 최종운	1구좌 박한나 5구좌 구광면 10구좌 김현광 박성환 조현진	삼일성서교회 1구좌 오성균	단체 및 기관 2구좌 바르고복된교회
2구좌 김지원 윤광길 이의선 최수지 하지혜	부설기관 1구좌 김하예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최미정	중앙성서교회 1구좌 이태학	
3구좌 공복순 전지혜			
5구좌 신상훈 이병철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광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영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솔기 권유철 권경진 권희조 금동완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동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을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취 노영민 노하나 도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맹현진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재선 박중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 용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진규 송바을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은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보영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유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준근 이 진 이진경 이진리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열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화연 이환기 인지재 임남연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식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진영 정희영 조민음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은석 최홍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예린 강해든이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해성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익봉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지다은 최가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황명화 하지혜 허춘선 홍진옥 홍해주 황인숙 등대학교회	김은채 박윤경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성령 이연신 이해정 임동화 장영선 전계화 지중배 박서연 이유진 진수정 2만원 강현중 박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은희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나예린 박명규 박은영 백순옥 송동식 신동숙 연성희 오영미 이경민 이미영 이선경 이승민 이승선 이승찬 이은영 장숙향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율미 지은애 최경애 최영숙 최장호 함은애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권서영 권오규 김세련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우종연 윤문순 이길순 이다운 이상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민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황영숙 줄은교회	2만원5천원 김효선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송의택 전희문 최정규
		4만원 배정환 신은진	3만원5천원 황미숙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근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표길홍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 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화도드림교회	5만원 권오길 박선희 손미연 안종현 이재현 정주화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승례 30만원 박지홍
		10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이유나 이정근 이지은 최경환 최승희 표길홍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 세빛교회 월계지역아동센터 화도드림교회	교직원 및 가족
		11만원 유선미	1만원 강신애 박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호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도서 박연지 박주영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명섭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허희수 허유민 묘시다고조 하늘사랑
		20만원 윤기성 이희숙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남영 한상만 한정숙
		22만원 성낙표	
		50만원 박강한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8천원 강지우	
		1만원 권명희 김민서 김선경 김은주	

기부자 명단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2만원 반오섭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길옥석 김동석 김동우 김성래 김윤숙 김익남 박문수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윤수현 윤준영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평화교회/행복한교회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성서대학교회 9천원 오경모 이 천 정갑순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3만원 왕순희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50만원 이은선 100만원 안명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만8천원 고나경 고미숙 권은정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상은 김성은A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은미 김인영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혜련 김희현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인숙 박주형 서영우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오종철 윤재필 이정숙 이경미 이무현 이봉호 이상록 이소정 이영진 이정자 이중옥 이주현 장기희 장진희 장혜린 장홍림 정희선 조영희 조정선 최용석 하은희 한성실 한충현 황성모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스 5만원 다드림교회/본도사략 증계점 /사랑생교회/상일교회 /예일에드컬/한일성서교회 /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시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2만7천원 박태수 선종인 3만6천원 강규성 강미경 고경숙 김민자 김성진B 김성진C 김인자 김일선B 김향순 박 선 박상희A 반혜빈 반혜성 양태환 홍정자 유중엽 이경신 이관영 이승림 이영희 장근문 정나영 정선희 정예진 조병하 최영태 허진순 황시은	중앙성서교회 1만원 강영애, 신한성 신영옥 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함금례 중앙성서교회원로·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3만원 오근수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3만원 안명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덕현 김용기 13만원 김중환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4만5천원 권경만 권정화 김주아 박은경 유형창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강영애, 신한성 신영옥 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함금례 중앙성서교회원로·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3만원 오근수 24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3만원 안명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희진	5만4천원 강유진 김경일 김유미A 김현석 반세호 송재철 전옥순 최선희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50만원 장현진 1020만원 정해덕	7만2천원 황서린 9만원 강성훈 권태완 길용희 김순옥 김원태 노봉환 박세건 박은유 이은실 이정임 최광희 최대만 한진호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4만원 플랜팅시스 5만원 다드림교회/본도사략 증계점 /사랑생교회/상일교회 /예일에드컬/한일성서교회 /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병수)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2만원 진양희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유정현 5만원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2만원 김선화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5만원 오동준	9만9천원 전명진 10만8천원 이숙영 12만6천원 김일선A 13만5천원 박은오 18만원 최순남 2785만원 성서대학교회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70만원 경성교회 4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서심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홍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70만원 경성교회 4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 김현진	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서심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미영 서민석 송수용 심미영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현석 유화실 이관현 이만우 이시량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운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위셀러듀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70만원 경성교회 4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미영 서민석 송수용 심미영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현석 유화실 이관현 이만우 이시량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운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위셀러듀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70만원 경성교회 4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서문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혜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미영 서민석 송수용 심미영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현석 유화실 이관현 이만우 이시량 이성영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운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위셀러듀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70만원 경성교회 400만원 대전새로남교회

소계(20240721~20240820) 80,675,200
누계(20240301~20240820) 480,124,046

한국성서대학교 8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10,600,000원)	정해덕(교직원) 10,000,000원 / 윤기성, 이희숙(동문) 200,000원 / 오근수(일반) 2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24구좌, 연간납입예정액 2,880,000원)	12구좌 김웅기(교직원) / 5구좌 표길홍(동문) / 3구좌 왕순희(일반) 2구좌 김덕현(교직원) / 1구좌 신용강 유현석(일반)
일시납 누계(3.1~8.22) 180,766,061원	약정자 누계(3.1~8.22) 102구좌 / 12,240,000원